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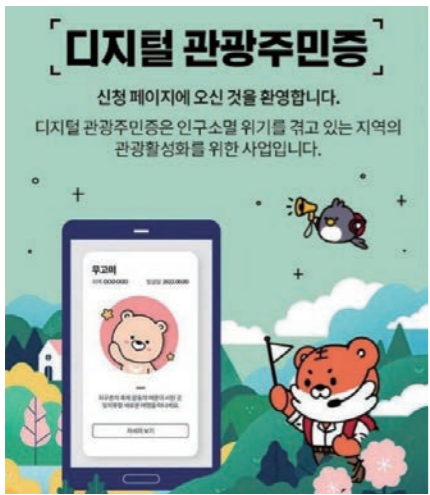


수성대 학생들이 '수자봉 카페' 앞에서 커피 주문을 하고 있다. 대구 수성구자원봉사센터

대구시 수성구자원봉사센터 '카페' 운영... 청년 봉사 독려

대구 수성구자원봉사센터가 지역 청년들의 자원봉사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대학 캠퍼스로 직접 찾아가다. 수성구자원봉사센터는 14일 수성대와 연계해 교내에서 이동형 홍보 프로그램인 '수자봉 카페'를 운영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자원봉사를 어렵게 느끼는 청년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가 봉사활동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실질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마련됐다. '수자봉 카페'는 커피차를 매개로 운영되는 센터의 대표적인 찾아가는 홍보 프로그램이다. 현장을 찾은 학생들에게 시원한 커피와 음료를 무료로 제공하며 자연스러운 소통의 장을 만들었다. 이날 센터는 음료 제공과 함께 △1365 자원봉사포털 가입 절차 안내 △센터 운영 주요 봉사 프로그램 소개 등 체계적인 정보 전달에 주력했다. 특히 현장에서는 전문 상담 인력이 배치되어 학생들의 전공이나 관심 분야에 맞춘 일대일 맞춤형 봉사 상담을 진행해 자원봉사가 단순 노동이 아닌 자기계발의 기회가 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

대구=허성호 기자 call0606@naver.com



순창군이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하는 '2026년 디지털 관광주인증' 신규 참여지역으로 선정됐다. 권주시

디지털 관광주인증 신규 지역 순창군 선정... 6월부터 할인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이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한 '2026년 디지털 관광주인증 신규 참여지역 공모'에 최종 선정되며 지역 특화 관광자원을 활용한 체류형 관광 활성화에 본격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한국관광공사는 순창군을 포함한 전국 8개 지자체를 2026년도 디지털 관광주인증 신규 대상으로 최종 확정했으며 향후 혜택지 등록과 QR 스캐너 설치 등을 거쳐 6월 초 대국민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디지털 관광주인증은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관광객에게 숙박·체험·식음료·쇼핑 등 다양한 할인 혜택을 제공해 지역 방문과 소비를 유도하는 관광 플랫폼 기반 사업이다. 순창군은 이번 공모에서 지역 고유 자원과 관광 소비 구조를 유기적으로 연결한 점 그리고 생활인구 확대를 정책 목표로 명확히 제시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순창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총 46개 업체 및 시설을 디지털 관광주인증 혜택지로 운영할 계획이다. 분야별로는 관광 2개소·숙박 6개소·체험 7개소·식음료 24개소·쇼핑 7개소로 구성돼 관광객들이 순창 곳곳에서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했다. 순창=허병수 기자 kh1204@naver.com

전남, 기후외교 무대로... 여수에 1만4000명 운집

전라남도가 20일부터 25일까지 여수세계박람회장에서 '제3차 유엔기후변화협약 기후주간 및 녹색대전환 국제주간'을 개최해 글로벌 기후외교 무대를 밟는다.

16일 전남도에 따르면 유엔기후변화협약 기후주간은 매년 당사국총회(COP)를 앞두고 정부·국제기구·기업·시민사회가 참여해 기후위기 대응 전략을 논의하는 국제기후 행사다.

이번 기후주간 여수 개최는 지속적인 외교 노력의 결과로 COP30에서 개최 당위성을 설명해 최종 개최지로 선정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 등과 함께 독일 본의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국을 방문하는 등 개최 노력을 꾸준히 펼친 결과 국제사회의 신뢰를 확보했다.

녹색대전환 국제주간도 동시에 열린다. 행사 공식 주제는 '녹색대전환, 모두의 성장의 길'로 고위급 에너지전환 정책 대화, 인공지능 전략 대화 등이 진행된다.

전남도는 이번 행사를 기존 전문가 중심에서 벗어나 시민 참여형으로 확대한다. 20일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과 주요 국 기후 분야 장관, 국제기구 고위급 등 800여 명이 참석하는 '녹색대전환 국제주간 개최식'을 시작으로 기후변화와 에너



전라남도가 20일부터 25일까지 여수세계박람회장에서 유엔 기후주간·녹색대전환 국제주간을 개최한다. 여수세계박람회장.

전라남도 여수=허병수 기자 kh1204@naver.com

20~25일 유엔 기후주간·녹색대전환 국제주간 개최
200억 원 경제효과 기대... 지역 연계 행사 등도 운영

지 안보 위기를 새로운 성장 기회로 삼겠다는 의지를 전달하는 녹색대전환 국제주간 회의 등을 진행한다.

또한 기후환경에너지대전·이클레이 세계기후도시포럼 등 지역 연계행사와 자원순환가게, 친환경 플라마켓 등 도민 참여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행사장 모든 구역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제한하고 다회용기를 사용하며 친환경 셔틀버스를 운영하는 등 '그린 컨벤션' 방식으로 추진한다. 종이 인쇄물도 줄이고 디지털 안내 시스템을 도입하는 '페이퍼리스' 환경도 구축한다.

전남도는 행사 기간 해외 대표단과 국제기구 관계자 1000여 명을 포함해 약 1만 4000명이 여수를 방문할 것으로 예상하고 약 200억 원 규모의 경제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황기연 지사 권한대행은 "전남은 이제 기후 논의의 참여 단계를 넘어 국제 의제를 주도하는 수준으로 나아가고 있다"며 "친환경 운영과 체계적 지원으로 전남의 역량을 국제사회에 각인시키고 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이 녹색대전환의 글로벌 표준 국가로 도약하는데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천 봉산면, 지역 농산물로 어르신 밥상 챙긴다



김천시 봉산면이 민관 협력으로 어르신 먹거리 지원 강화에 나섰다. 김천시

스마트팜 빛마루 농장·서산맛김과 협약 경로당 식자재 후원... 복지 사각지대 해소

경상북도 김천시 봉산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16일 스마트팜 온실을 신축한 '빛마루 농장'과 '서산맛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역 어르신을 위한 먹거리 지원 강화에 나섰다.

빛마루 농장은 첨단 스마트팜 시설을 기반으로 오이를 재배하는 농장으로 안정적인 생산과 품질 관리를 통해 지역 농업의 새로운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빛마루 농장은 지역 내 주 5일 중식 지원사업이 운영되는 경로당을 대상으로 매월 오이 1상자를 지원하고 봉산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후원 물품 전달을 맡는다.

이승현 빛마루 농장 대표는 "지역에서 생산한 신선한 농산물을 주민들과 나눌 수 있어 뜻깊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나눔을 통해 지역사회에 보탬이 되고 싶다"고 말했다.

서산맛김은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한 식생활 지원을 위해 경로당 중식 지원 사업 대상 경로당에 매월 김 한 톨을 정기적으로 후원할 예정이다. 협의체는 물품 전달과 배분, 경로당과의 소통 및 관리 역할을 담당한다.

서산맛김은 최상급 원초를 사용한 조미김을 생산하는 업체로, 위생적인 제조시설과 오랜 노하우를 바탕으로 꾸준한 품

질을 유지하며 소비자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윤인숙 서산맛김 대표는 "오랜 기간 쌓아온 경험과 정성으로 만든 제품을 지역 어르신들과 나눌 수 있어 기쁘다"고 밝혔다.

이종여 봉산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은 "지역 업체의 참여로 경로당 중식 지원이 더욱 풍성해졌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민간 자원을 연계해 복지 체감을 높여겠다"고 말했다.

이진숙 봉산면장은 "지역을 위한 따뜻한 나눔에 동참해 준 기업에 감사드린다"며 "스마트팜 농가와 협약을 지역 농업과 복지가 함께 성장하는 의미 있는 사례"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민관 협력을 통한 촘촘한 복지망 구축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김천=이찬희 기자 chlee2@skyedaily.com

전남도, 농어민 공익수당 70만 원으로 인상

21만4037명 대상자 확정 이달 중 지역화폐로 지급

전라남도가 농어민 공익수당을 기존 6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10만 원 인상에 이달 중 시군을 통해 지급한다.

16일 전남도에 따르면 농어민 공익수당은 농어업·임업의 공익적 가치 보전과 경영 안정을 위해 2020년 전남도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제도다.

2020년부터 2025년까지 6년간 124만 명에게 총 7436억 원이 지급됐으며 올해 지급 규모는 도비 599억 원(40%)과 시군비 899억 원(60%) 등 총 1498억 원이다.

지급 대상은 지난해 1월1일 이전부터 전남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농어업에 종사한 경영주 21만4037명이다. 전남도는 23일 신청을 받아 자격 검증을 거쳐 대상자를 확정했다.

공익수당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류카드 형태의 지역화폐로 지급된다. 전남도는 지역화폐 지급 방식이 농어민 소



전라남도가 농어민 공익수당을 기존 6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인상에 이달 중 지급한다. 농민들이 농업 작업을 하고 있다. 전라남도

득 증대뿐 아니라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매출 증가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대상자는 신분증을 지참해 주소지 읍면동사무소나 농협을 방문하면 받을 수 있다. 김현미 농업정책과장은 "중동발 위기로 농어민 경영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공익수당이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차질 없이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무안=허병수 기자 kh1204@naver.com

포항, 국비 확보 총력... AI 등 미래 경쟁력에 초점

내년 예산 확보 추진 보고회 287건 사업 1조6631억 규모

경상북도 포항시가 15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장상길 포항시장 권한대행 주재로 '2027년도 국가투자예산 확보 제2차 추진상황 보고회'를 열고 부처별 예산 편성 일정에 맞춘 맞춤형 대응 전략을 점검했다.

16일 포항시에 따르면 추진 중인 내년도 국비 확보 대상 사업은 총 287건, 1조6631억 원 규모다. 이 중 신규사업은 95건(2526억 원), 계속사업은 192건(1조4105억 원)으로 집계됐다.

주요 사업에는 제조 특화 온디바이스 인공지능(AI) 기반 자율제조 실증 기반 구축, 연여양식 특화단지 확대, 복합 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 등 미래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프로젝트가 포함됐다.

시는 중앙부처 협의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향후 예산 심의 과정에서 예상되는



포항시가 2027년 예산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15일 '제2차 추진상황 보고회'를 갖고 있다. 포항시

장점에 대비해 논리를 보완하는데 집중하고 있다.

특히 영일만횡단대교 등 대형 사회간접자본(SOC) 사업과 이차전지·수소·바이오 산업의 정책 부합성을 강조하며 국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또한 경상북도와 중앙부처, 국회를 수시로 방문해 사업의 타당성을 적극 설

명하고 정부 정책과 공모사업 동향을 반영해 전략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장상길 권한대행은 "국·도비 확보를 통한 공공투자가 민생 안정의 마중물이 돼야 한다"며 "부서 간 긴밀한 협업과 치밀한 논리로 끝까지 설득해 최종 예산 반영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포항=이성호 기자 leesh0412@naver.com